2023년

기후정의주일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일시 2023년 9월 17일
세계기후행동의 날 직전 주일

문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02-765-1136/ www.kncc.or.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02-711-8905 www.greenchrist.org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 지속불가능한 생활방식을 벗어나 창조세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함으로써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시다.
- 예배 자료는 www.kncc.or.kr/ www.greenchrist.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후정의주일 예배 자료집 목차

인사말 / **2023년 기후정의주일을 맞이하며** / 3

환영사 / **기후정의주일을 지킵시다** / 4

주제 해설 /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 / 6

기도문 / **2023년 창조절 기도문** / 9

기도문 / **기후정의주일 공동기도문** / 10

예식문 / **환영 및 인사, 교독문, 찬양, 평화의 나눔과 파송의 기원** / 11

설교문 1 / **장년 -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 / 13

설교문 2 / **장년 -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 / 17

설교문 3 / **어린이 - 우리는 시냇물 우리는 분자 우리는 연결된 존재들** / 19

설교문 4 / **청소년 -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강처럼** / 24

주간 기도문 / **장애인, 여성, 농민, 빈민, 노동자, 청년의 기도** / 27

인사말

2023년 기후정의주일을 맞이하며

인영남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두 번째 기후정의주일을 앞둔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내 손 안의 작은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인데, 일본 정부는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삼아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것이 자명한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하루 속히 중단되고 보다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창조세계를 쓰레기장으로,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창조세계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고 무수히 많은 생물의 멸종을 외면한 채 작은 편리와 이윤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마구 파헤치고 짓밟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파헤치고 짓밟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면한 기후위기는 곧 창조세계의 위기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죄악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탐욕에서 돌이켜 기후정의, 생태정의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기후정의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기후정의주일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탐욕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창조세계의 신음소리에 마음 아파하시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천하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생명의 은총 가운데로 이끄는 거룩한 노둣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듣고 보아야 할 하늘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여라!" 정의와 평화의 강이 되어 창조세계의 온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바다로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이 세상에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환영사

기후정의주일을 지킵시다

양재성 목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지키고 돌보게 하셨다. (창 2/15)

하나님께서 천지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땅도 그의 것입니다. 지구도 달도 별도 우주도 그 분의 것입니다. 우주 안에 생명 비생명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무엇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지어져서 마치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그 중심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자연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 본 분이 바울입니다. 실제 천지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한 분들이 많습니다.

천지자연을 보고 하나님 자신도 경탄하였듯이 경탄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아울러 인간은 천지자연을 돌보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사명을 받고 지어졌습니다. 요즘 그 사명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걱정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였습니다. 이는 바다에 대한 폭거이며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에 대한 테러입니다. 나아가 바다에 기대어 사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이며 인류 사회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핵 오염수는 바다에 들어가 해초를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에 의해 바다 생명체들, 이웃 생명들과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바다를 통해 지어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는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행위이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발입니다. 교회가 핵 오염수 투기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9월인데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상의 섬 하와이가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고 홍수와 가뭄, 태풍 등 재앙 수준의 기후상황이 지구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은 작은 생명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해마다 기후난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지구는 그 미래가 암울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동안 수십만명의 신도가 감소했습니다.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위기를 돌파는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감히 단언 하건데 근본이신 하나님과 접속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며 영성을 기르는 일과 가장 큰 시대적 과제인 기후재앙을 풀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정신적인 존재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적 우주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제논리가 아닌 생명논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이 한국교회는 6월 환경주일에 이어 9월 기후정의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교단별로 기후위기를 교회적 중심과제로 삼고 탄소중립로드맵을 결의하였고 기후관련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주일 자료집을 보급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 기후정의주일을 지켜주시고 마음모아 기도합시다. 자료집을 참조하여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기도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실천합시다.

주제 해설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

* 2023년 기후정의주일 주제는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입니다. 이는 올해 창조절 주제와 동일합니다. 아래의 주제해설과 기도문은 세계교회 창조절 운영위원회에서 배포한 '2023년 창조절 안내서'에 수록된 글입니다.

평화의 강에 합류하기

2023년의 창조절의 주제는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이고, 상징은 "거대한 강"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 5:24)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고, 기후정의와 생태정의를 받아들이고, 기후부정의와 생물다양성 상실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설교, 전례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평화와 결합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꿀 것을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평화(샬롬)'는 갈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 인간 이웃, 모든 피조물과의 긍정적이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포함합니다.

자연 요소들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상호연결된 삶의 방식을 구체화하여 살아가는 토착민 공동체는, 사람과 지구의 생명 사이의 파트너십을 표현하며, 다른 세계를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세계의 대표로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는 것처럼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서 우리 각각의 정체성, 이름, 가족 또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평화와 정의의 거대한 강의 일부로서 모든 창조세계를 대표해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주는 생명의 강

선지자 이사야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이사야 43:19)라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대멸종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생물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을 섭씨 1.5도까지 유지하는 희망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알고, 즐기고, 축하해 온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연속적인 영향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산업화, 식민지화, 자원의

추출과 소비는 불평등하게 분배된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강력한 북반구 국가는 남반구 국가와 토착민, 그리고 최저생활 공동체를 희생시키면서 부유하게 성장했습니다.

오늘의 기후, 생태적 비상사태는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최빈국에 거주하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세계인구의 5%를 차지하는 토착민들은 세계에 남아 있는 생물다양성의 거의 80%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석연료와 폭력, 전쟁 사이의 연관성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석연료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 대신 태양과 바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각국이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상을 꿈꾸고 일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가 지구와 함께 지구에서 가시적인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정의는 우리에게 회개와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의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함으로써 절망 대신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사막에서는 시냇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다툼에 기반을 둔 경제 대신 평화의 경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거센 물살은 산을 옮길 수 있다

우리 개인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창조의 예식을 갖고, 정화에 참여하고, 나무를 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 중 일부입니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정의의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의에는 역사적인 빚을 갚는 것도 포함됩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힘과 부를 가진 국가는 기후와 생태적 위기로 가장 고통받는 지역사회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다룰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 논의에서 덜 부유한 이웃들을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취약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손실과 피해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덜 부유한 국가에서 필요한 생물다양성 장기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반구 국가들은 30년 이상의 협력하여 COP27(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유한 국가들이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자금을 제공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깨닫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COP15(2022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최근 결정도 희망적이며 유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UN해양조약은 공해에서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전 세계의 보다 지속적인 대응에 대한 희망을 더합니다. 이러한 승리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다함께 지구와 미래 세대에 새 생명을 가져다주는 정의와 평화의 거대한 강, 불의의 산을 옮길 수 있는 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강이 우리의 활동에 영감을 주는 방법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선출된 의원들에게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약속들에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와 남아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국제회의에서 약속된 기금을 포함합니다.

우리와 모든 창조세계와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또 다른 행동에는 어머니 지구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운동의 일부인 '세계 강 권리 선언'에 대해 배우고 서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에큐메니컬 가족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생명의 그물이 보존되고 돌봄을 받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과 동시에 정의와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교를 나누며 함께 여행을 떠납시다!

2023년 창조절 기도문

만물의 창조주시여,

당신 사랑의 친교에서 생명이 거대한 강처럼 솟구쳐 나왔고 온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육신이 되신 당신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 평화와 정의를 선포하며
생명을 주는 물과 함께 사랑으로 넘치는 이 지구 위로 퍼져갑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장 취약한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흐르는 사랑의 친교를 깨뜨리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동료 생물종의 감소와 그들의 서식지 상실을 슬퍼하고,
쫓겨나거나 멸종된 생명과 함께 인간 문화의 상실을 가슴 아파하며,
우리 자신과 지구에 가져온 죽음, 전쟁과 폭력적 경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시어
성경과 창조세계를 통해 부르시는 창조와 화해와 격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축복하시어 창조주의 영으로 저희 마음에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로 넘쳐흐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생수를 받아 고통받는 자매형제들, 우리 주변의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창조세계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우리가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과 함께 걸어가도록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생수를 주는 여러 시냇물이 지구 전체를 흐르는 거대한 강이 되게 하소서.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후정의주일 공동기도문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어느 곳 하나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한 공간을 우리의 욕망대로 짓밟고 다녔습니다.
숲을 파괴하고,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다른 생명을 괴롭히고 착취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조차 감당하기 힘든 기후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가뭄과 홍수가 식량위기를 초래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고통받으시는 주님,
파괴되는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생명, 굶주린 생명, 가난한 생명, 쫓겨난 생명,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오신
생명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사이에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죽음과 생명에 대한 모든 파괴적인 행위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정의와 평화가 함께 만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꿈꾸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길을 닦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식문

○ 인도자 ● 회중 ◑ 다같이

환영 및 인사

○ 우리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창조세계 생명들 사이의 상호 연결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의 강이 흐르도록 우리가 그 희망의 시작이 됩시다.

● **우리가 정의로 거듭나 평화의 강물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독문

○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시 51: 1-3)**

○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에게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시 85: 7-9)**

○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 주의 **도를 땅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시 67:1-2) 아멘**

찬양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되게”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평화의 나눔과 파송의 기원

○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 **평화와 사랑, 용서와 은혜, 그리고 정의로 서로 인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돌봄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우리 창조주의 평화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당신은 이웃을 돌보고 평화를 나누도록 초대받았으며, 당신이 모이는 땅과 이 공동의 집을 공유하는 피조물들에게 평화의 말을 전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 **들의 백합화를 경이롭게 하시고,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비추는 모든 피조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기후정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설교문 1

장년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

아모스 5:21~24

최형묵 목사 (천안살림교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암 5:24).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의 선포는 언제 들어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변방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무화과나무를 가꾸어 먹고 살던 농부였습니다(1:1, 7:14~15). 변방의 농부 출신 예언자로서 아모스는 스스로 체득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예민한 감각으로 당대 사회와 종교를 향하여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는 당대 주류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명망 있는 어떤 계보에도 끼지 않는 야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의 선포는 더욱 진솔하게 성서의 정수를 잘 집약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백 번 들어도 지당한 말씀이지만, 선포된 그 문맥을 보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5:21~24)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예배를 정성껏 드렸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자체가 시사하고 있듯이 매번 정해진 시기에 예배를 드렸고, 또한 그때마다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형식과 절차, 게다가 그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데 정성까지 손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 예배와 함께 꼭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곧 정의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과 율법, 그리고 예언자의 선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성서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의 일치, 종교와 윤리의 공존,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이웃에 대한 섬김의 일치가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형식으로서 예배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내용으로서 정의의 실현과 직결됩니다. 구체적인 삶 안에서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으로서 예배는 허망해집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런 사태를 두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맥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긴 최초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절입니다. 권세가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권세가들과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종교는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축복하는 의식에 다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시골 농부 아모스를 불러 준엄한 뜻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8:1~3). '다 익은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탐스럽게 보이지만 이미 종말에 이른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지만 정의가 사라지고 평화가 무너진 현실입니다. 권세가들이 온갖 속임수와 못된 짓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의가 사라진 현실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통해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생활은 그저 주어진 그대로 질서 안에서 그냥 그렇게 영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이뤄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정의가 부재한 현실을 꼬집으며, 그 정의가 부재한 현실을 외면하며 자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위의식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 선포는 마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음성과도 같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창조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후정의 주일을 지키자는 제안서 <2023년 창조절 안내서>는 본문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종교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 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모금계획 홍보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희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큰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2023 세계교회 창조절 홈페이지, <2023년 창조절 안내서> / 기독교환경운동연대·한국교회환경연구소 번역)

이렇게 새기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실감 나게 다가올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만,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게 해 줍니다. 가장 근본적인 진실, 곧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새기게 하여 줍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로서 정의의 구현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번역되는 '체다카'는 좁은 의미에서 인간사회 안에 구현되는 분배정의만을 뜻하지 않고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신실한 인간의 실존을 형성하는 모든 것, 곧 평화, 해방, 속죄, 은총, 구원 등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서의 정의는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에 상응하여 인간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서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행위로서 정의는 억압받는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과 약속을 맺는 것을 중요한 거점으로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의 해방에 이르게 되고, 이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신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구체화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성서는 일관되게 억압받는 백성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를 환기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야 할 정의를 강조합니다. 출애굽 사건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계약법전(출 20:22~23:33)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정신은 이후 신명기 법전(신 12~26장)과 성결법전(레 17~26장) 등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고, 예언자들의 선포에서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선포한 본문 말씀 또한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눅 6:20)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정의의 요체는, 가난한 사람을 비롯하여 그 누구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만나 이야기(출 16:1~36), 주의 기도(마 6:9~13, 눅 11:2~4),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 20:1~16), 최후심판의 비유(마 25:31~46) 등은 그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는 인간 삶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특히 희년법(레 25:8~55)과 예언자들의 선포(사 11:6~8 등)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적대를 극복하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온전한 평화(샬롬)의 세계입니다. 성서는 그 평화가 정의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정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를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정의의 관점에서 돌아보며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정의는 관계의 온전함을 뜻하며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저마다 삶을 온전히 향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주변의 환경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사회의 부정의가 곧 기후위기를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은 곧 세계 자체의 부정의를 뜻합니다. 단적인 하나의 예를 볼까요? 오늘날 지구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의 49%를 배출하고 있는 데 반해 소득 하위 10%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양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 상위 10%는 기후위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소득 하위 10%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의 한계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정의를 말하는 것은 그 부정의를 초래하는 인간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고, 그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 안에서 온전한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후위기나 생태위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수의 생태지향적 운동가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교회와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가들도 말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유수한 기업들의 슬로건이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이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대처방안에서도 과연 모두가 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기 의미 있는 실천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각기 그 대처방안이 오늘의 기후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제한적인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오늘

기후위기가 무한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무한한 이윤추구에 따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해 야기되는 위기현상입니다. 무한한 이윤추구와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은 그 안에 불의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상품화하여 착취함으로써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자연을 대상화하여 끊임없이 수탈함으로써 자신의 생존 기반 자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질 시대를 '인류세'(Anthropocene)라고 하자는 의견이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그 대신에 '자본세'(Capitalocene)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자본주의가 빚어낸 폐해를 엄중하게 인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특별히 자연은 상품생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수도꼭지'이자 동시에 그 상품을 활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하는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량의 상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고, 이후에 버려진 각종 유해 물질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터전이자 동시에 모든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온생명을 이루는 자연이 아니라 그저 활용가능한 대상으로만 여겨온 탓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기후정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사회 안에서 불의를 초래하는 경제체제와 삶의 방식을 바꿔 정의를 이루는 것은 물론 그간 대상화해왔던 자연을 마땅한 주체로 인정하여 인간과 자연의 정의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인간과 자연의 분리를 극복하고 자연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정의로운 평화의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실천적 대안들은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추구하는 과정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형태의 실천을 포괄합니다. 무절제한 욕망을 따르기보다는 검약한 생활을 함으로써 자원의 남용을 억제하고 유해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개인적·공동체적 실천은 오늘 기후위기를 저마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이윤추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체제의 형성과 삶의 방식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근본적 대안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원의 활용과 배분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내맡기지 않고 사회적 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의 형성을 동반해야 합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각 개인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보장하는 삶의 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평범한 사람들도 그 정의로운 삶의 질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를 때 누구도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설교문은 주제에 따른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자 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각기 현장에서 생동감 넘치는 말씀을 준비하는 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최형묵

설교문 2

장년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

요한복음 7:37-39

박용권 목사 (봉원교회)

사람에게서 나오는 죽음의 물

지난 8월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폭파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완전히 철거하지 못하면, 일본은 앞으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 배출할 것입니다. 그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폭파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온갖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 오염수가 바다 생물과 바다 자체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나라는 일본만이 아닙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고, 그것이 결국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과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갖 오염수가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오염수는 죽음의 물이기에 그 오염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죽고,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오염수, 죽음의 물의 배후에는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시를 건설하고, 공장과 건물을 짓고, 심지어 위험한 핵발전소까지 세웠습니다. 그러한 곳들에서 엄청나게 많고도 독한 쓰레기와 오염수, 즉 죽음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바로 죽음의 물이 흘려 나오는 근원입니다.

그 죽음의 물을 흘려보내는 대가로 소수 사람들과 소수 나라들은 부유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과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죽음의 물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불의한 현실입니다.

초막절과 물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킵니다. 여덟 째 날,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가장 성대한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람들 앞에 등장하셔서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기간에 날마다 거행하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랑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물을 마시며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은 생명의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의식이요, 하나님께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의식입니다.

생명의 물, 예수

이런 의식이 거행되는 초막절에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물을 주는 분'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어떤 근거나 증언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는 ... 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한복음 6:35)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복음 8:12) '나는 선한 목자다.'(요한복음 10:11)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근거나 증언도 없이 당신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임을 전제하고, 당신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주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이 친히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약탈과 학대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의무만 무겁게 지워줄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는 로마 제국에 잘 보이며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침략자인 로마 제국 사람들과 어리석은 유대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영적이거나 육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의 조상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명의 물이니, 당신에게 나아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황무지가 되어 버린 곳도 많습니다. 가뭄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는 곳도 많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사람들은 기후 재앙으로 온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께 나아가기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물인지 아닌지를 묻고 따지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님에게 나아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에게 나아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닌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빛과 어두움,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학정 아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생존을 걱정하지 말고, 빛과 진리와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빛과 진리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구절이 이것을 설명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어둠과 거짓과 죽음 가운데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무수한 공장에서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좋은 물건, 큰 물건,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람들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물건 더 좋은 물건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내내 공장이 돌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해소되지 않는 사람들의 갈증과 욕망이 에너지와 물건을 계속 소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죽음의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죽음의 물 때문에 인류와 수많은 피조물이 죽음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물건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면, 우리는 더 좋은 물건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찾느라고 우리 인생 전부를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죽음의 물이 계속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좀 더 부유하고 화려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런 경쟁에 빠져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갈증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물을 내보내는 일을 그치고 세상을 살리는 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에스겔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40-4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고 그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47장에서 에스겔은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번성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생명을 살리는 물, 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서 바로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곳곳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특히 기후 재앙으로 인해 수많은 동식물이 죽고, 세계 곳곳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진화할 수 없는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좋은 물건이나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에게서는 결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세계 곳곳이 불에 타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요, 그 생수의 강들이 합류하여 온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느라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온 세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물질적인 욕망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세상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설교문 3

어린이

우리는 시냇물, 우리는 분자, 우리는 연결된 존재들!

아모스 5:21-24

이지혜 목사 (새터교회)

오늘 본문 아모스에 나오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싫다.', '역겹다', '기쁘지 않다', '받지 않겠다', '거들떠보지 않겠다', '집어치워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최선을 다해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진 짐승을 바치고, 온갖 악기들을 사용해 크고 아름답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돋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아모스 5장 12절에는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담긴 예배와 제사는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돌아서면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척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다음의 말을 토해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건, 예배와 삶을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예배에서만 머무는게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게 하는 일입니다.

어린이 동요 중에 '시냇물'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시냇물')

냇물은 흘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은 흘러서 바닷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곡에 놀러가 본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계곡에 놀러 가면, 어디에서 그렇게 물이 쏟아져 오는지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들이 만나 계곡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서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히지요. 시원한 계곡물은 흘러 흘러 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강은 다시 바다와 연결되지요.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본 적 있나요? 흐르지 않는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계속 물로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공기도 순환이 되어야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되어요. 우리 몸속의 세포와 피도 마찬가지에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 준 덕분에 우리는 숨 쉬며, 뛰어 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려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소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는 중학교 1학년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코페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잘 불립니다. 코페르는 어느날 삼촌과 함께 쇼핑몰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한참을 내려보던 코페르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분자와 같다. 지극히 작은 존재들이 모여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라고요.

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위의 화학물질입니다.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물이 되고 공기가 되기도 하지요. 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결코 혼자서는 물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도 분자와 같습니다. 인간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우주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지만, 연결되어 있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분자인 인간은 가장 먼저 자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과 바람과 햇살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미생물 덕분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연결된 덕분에 바다 생물을 먹기도 하고, 바다의 수증기가 올라와 땅을 촉촉이 적시는 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산속 작은 물줄기들이 연결되어 강과 바다를 흐르게 하듯, 분자인 우리도 연결되어 세상을 흐르게 합니다. 강과 바다가 홀로 고고하게 존재할 수 없듯, 우리도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곁의 또 다른 분자가 있어야, 자연이라는 분자와 연결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페르는 마지막에 외삼촌에게 이런 다짐이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외삼촌 말씀처럼 나는 소비 전문가이고, 아무것도 생산하는게 없어요. 우라가와와 달리 지금 나는 무언가 생산해 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만한 일은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위해 무언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코페르는 자기 안의 물줄기가 자기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흘러 흘러 강으로, 바다로 가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깨끗하고, 시원한 물줄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의를 물 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줄기를 강으로, 바다로 흘려보내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 바다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세상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어떤 물을 흘려보낼지 고민하며 성찰하면 됩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줄기를 흘려보낼 것인지, 더럽고 먹을 수 없는 물을 흘려보낼 것인지,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많이 아픕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홍수가 나고,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엄청난 기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분자에 불과하지만, 서로 연결될 때,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세상을 위해 좋은 것을 낳겠다는 코페르의 다짐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파하는 지구를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면 됩니다. 연약한 물줄기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물줄기가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물줄기를 통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흘러 다닐 것입니다.

설교문 4

청소년

공의를 물처럼, 정의를 강처럼

아모스 5장 21~24절

김진희 목사 (안골교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요즘 사는게 어때요? 힘들지요? 적지 않은 시간동안 코로나를 겪어내느라 참 고생이 많았는데 이젠 폭염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끔찍했던 올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 가장 시원하다는 소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기성세대로서 미래세대인 여러분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른들의 탐욕이 지구생태계를 이렇게 망쳐놓은 것 같아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후위기를 너머 기후재앙시대의 현실은 인류 전체에 있어 매우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울 뿐 아니라 예측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향해 가야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정의주일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기후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UN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는 끝났고, 이제 "끓는 지구(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세계 곳곳에 발생한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터전을 잃고 있지요.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최근 우울증 등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기후위기, 환경의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월평균 기온 1도 상승시 자살 발생률이 1.5% 증가하며, 정신 질환으로 인한 병원 진료나 입원은 폭염시 9.7%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로 폭염이 자살률 및 정신 질환 응급 환자 비율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시아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의 1도 상승에 따라 사회적 폭력 비율 또한 6.3% 정도로 상승했다고 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기온 상승의 연관성은 아프리카의 경우 60%, 스페인의 경우는 40%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높은 기온에 신체가 노출될 경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감정 조절이 낮아지고 공격성이 높아져 불안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더불어 폭염이나 홍수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가정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분노는 가정 내 약자를 향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참으로 끔찍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공포스럽게 변한 기후환경이 사람들의 멘탈을 붕괴시키고 그 감정적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게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우리가 모두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피해를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곤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주로 선진국에서 배출하는데, 지난 200년 동안 산업화를 이루면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나라는 미국이 압도적 1위, 최근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군소 도서개발국이나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이산화탄소의 배출 비율이 0.4에서 0.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오염시킨 대기에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개발도상국에 더 가혹한 기후위기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선진국이 하고 피해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받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기후정의란 무엇일까요? 기후정의는 기후위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의 양극화를 줄이고, 개발도상국들에 피해를 보상하고,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슈나 아츄타라오 교수(인도델리공과대 대기과학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국은 탄소배출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다. 그와 더불어 탄소배출을 대폭 감소해야 할 더 큰 책임도 갖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아직까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만큼 개발도상국에는 (추가적) 탄소배출을 통한 소득격차를 즐여야 한다. 선진국은 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갖췄고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더 큰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보다 더 빨리, 그리고 많이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직도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개발도상국에 더 가혹한 기후위기 극복과 '기후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워치워라!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네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오만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고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행태를 향해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빌어 엄포를 내리십니다. "집워치워라! 난 너희 그 더러운 마음으로 바치는 제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고 하시면서 오직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장차 멸망당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데 영적 빈곤이 극심했고, 사치와 향락으로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마치 현재 인류의 미래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타락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와 공분을 피할 수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먼 불평등과 약자나 약소국들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에 갖다 버리는 옷과 전자제품들은 그 양이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그 산처럼 쌓인

쓰레기들은 그 가난한 나라의 땅과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세계 유수한 다국적 기업들이 가난한 나라의 노동력을 헐값에 착취하면서 배출하는 오염수에 대해 그들은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그 나라에 반드시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했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가에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버리면서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이 뿜어내는 오염과 버리는 쓰레기들로 어느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극단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일상의 선택과 소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사고, 함부로 버리는 것들이 단지 나의 개인적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많은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곳곳에 타들어가는 지구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바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기후재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계신 그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간 기도문

9월 18일 월요일 - 기후정의를 향한 장애인의 기도

최병호 (산정현교회)

우주의 모든 존재를 각자의 모습대로 만드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극단적 기후 위기와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거세진 현실 앞에서 당신께 기도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을 넘어서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자원으로 착취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악용하는 천박한 자본주의는 폭주 열차처럼 질주하여서 아름다운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공멸의 비극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에 상처받고 억압받는 존재들의 신음과 파국은 이제 모두에게 닥친 무서운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가까운 미래로 느껴져 두렵습니다. 난치환자이자 장애인인 저는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에는 건강이 더욱 나빠집니다. 더욱이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는 편리한 이동과 접근이 어려워서 고립 가운데 생존에 위협을 받기가 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21세기의 자연 생태계와 고도로 발달한 인류문명은 어떤가요? 갈수록 증대되는 인간의 폭력과 탐욕에 무참히 짓밟히는 세계와 존귀한 생명들의 울부짖음에 함께 아파하시겠지요. 특별히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새는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 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세상에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이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의한 억압과 혐오에 놓인 여성과 장애인, 소수자들의 설움을 달래주시며, 섬김의 낮은 자리에 친히 함께 거하시며, 믿음과 기도에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길 괴로운 침상에서 뜨겁게 간구합니다.

저는 변혁을 꿈꾸는 사회주의자나 진보적 활동가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선하고 바르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한 인간이고 환자이자, 장애인입니다. 비록 현장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치지는 못하지만, 세상의 차별과 혐오 앞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의지하며, 소소한 일상을 살아내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위기가 가속되는 암담한 현실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비장애인의 권리와 풍요를 위해 거세지는 불의를 부디, 막아주십시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가 새삼 떠오릅니다. 어쩔 수 없는 벽 앞에 가로막혀도, 푸르게 절망을 온통 덮을 때까지 한 뼘이라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오르자고 노래합니다. 평범한 우리도 그처럼 흔한 담쟁이 잎

하나에 불과한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거대한 기후위기든 강력한 차별이든, 그 절망에서 주님이 열어 주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끌고 벽을 넘도록 작은 우리를 강건히 붙들어주십시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웃고 울며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9일 화요일 - 기후정의를 향한 여성들의 기도

안수경 (기장전국여교역자회)

창조의 주 하나님,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창조세계가 깊은 탄식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가 날마다 가속화되어 가장 약한 이들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이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에 갇혀 있었던 우리 문명을 회개하게 하시고, 기후 위기로 인해 가장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과 아이들과 약한 자들의 소리없는 탄식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원론적 사고와 인간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는 그동안 자연과 여성을 동일시하며, 억압하고 착취해왔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위험 역시 기존의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후위기로 인해 가난한 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초대형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5배 이상이라는 통계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성의 몫으로 내맡겨졌던 많은 노동의 현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언제나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성들이 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직에 가장 빠르게 노출되며, 직장과 가사노동, 돌봄으로 인한 삼중고를 경험했음을 목도했습니다.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여성들의 탄식에 우리가 더 예민하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절망을 넘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여성들이 변화와 위기 극복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여성들이 기후변화 완화, 재난 감소와 적응 전략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가정과 공동체의 자원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생활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희망의 소식에 힘입어,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를 긍정하며, 위기의 시대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과 권리를 당당히 지키는 힘을 기르게 하옵소서. 자신과 이웃의 삶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줄여가는 일에 힘을 내게 하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과 돌봄,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고 전파하는 일에 주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르고도 효과적인 길이 되어줄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당장 생명 살림 일꾼으로 나서겠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정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0일 수요일 - 기후정의를 향한 농민들의 기도

전상규 (옥매교회)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터전인 땅과 하늘과 바다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경작하고 번성하라하신 하나님,
당신이 주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는 그간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겨울부터 시작된 초유의 가뭄 속에서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아도
당신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매서운 겨울을 버텨냈던 마늘도, 양파도,
그리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던 농부의 부지런한 손들도, 오직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긴 가뭄을 지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듯 비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저 늦은 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킨 많은 물로 인해
가뭄을 버텨 살아낸, 마늘과 양파가 수확철을 앞두고 썩어버리고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당신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제 멈춘 것입니까?

주여, 이 모든 것이 맘몬을 너무 사랑했던 우리의 탓임을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당신께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끓어오르는 욕심이 들판과 바다를 더욱 뜨거워지게 했습니다.
작물들이 가물어 말라가고, 양식장에 물고기가 익어서 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적인 인간들이 버린 핵오염수가 생명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멈추게 하소서. 이제라도 멈추게 하소서.
우리의 끓어오르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빛으로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지구별의 십자가를 지고 빛을 비추게 하사
이 땅을 소망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지구별의 작은 것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1일 목요일 - 기후정의를 향한 도시빈민의 기도

이민희 (옥바라지선교센터)

주님,

당신은 만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닿은 당신의 손길을 무시하고
돈과 편리함만 생각하느라 지구에 부당한 요구를 해댔습니다.
알량한 지식으로 지구를 억압하고 통제했습니다.
여러 위기가 불평등으로 등장하는데도 지구를 소진하느라 바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편견과 혐오를 마구 내뱉었습니다.

결국 이상고온, 기후위기 같은 표현이 일상 언어가 되었습니다.
계절과 지역에 상관없이, 화마가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다가도 금세 폭염이 기승하고,
이런 날씨를 따라잡지 못해 매번 소중한 생명들을 잃어버립니다.
이 안에서 몸 뉘일 곳조차 충분히 갖지 못한
가장 약하고, 어리고, 가난한 이들은 더 큰 고통과 비극으로 몰려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구에 대해 무엇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구와 가장 취약한 이들이 내는 신음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깊은 탄식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용서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만물을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넉넉히 돌보시는 사랑에 기대길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자신을 바꾸어 주십시오.
지금껏 나의 유익과 편안함만 바랐던 삶의 방식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온전하고 마땅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더 많은 존재를 살피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믿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2일 금요일 - 기후정의를 향한 노동자의 기도

손은정 (영등포산업선교회)

주님! 태초에 말씀과 노동으로 지으신 이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집인 이 지구는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빴습니다.(학1:9)
거리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이번 여름 폭염과 폭우 한가운데서 얼마나 극한 노동을 했는지를 보았음에도 그냥 지나쳤고, 지난 3년간 코로나 전염병의 한가운데서 일터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수고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무심함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한 기후와 극한 노동>이라는 이 불평등한 현실에 눈감지 않게 하소서. 수많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극한 노동을 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주옵소서. 산업 전환과 일자리 변화가 예고되지만, 고용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 위기를 감추고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권력자들과 기업주들의 광고에 휩쓸리지 않게 하소서. 이미 기후재앙의 파국이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위기 징후들 앞에서 저희들이 무기력해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와 흐름를 바꿀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종말론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공생애 3년 동안 보여주셨던 모습을 다시 새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고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신 당신은 3년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국의 불의와 우리의 비겁과 죄악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종말론적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죽음의 세력과 싸우며 고난을 짊어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는 무정부 상태와 같아서 책임지는 나라와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에 깨어 반응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고, 여성들, 노동자와 농민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양한 빛깔과 움직임으로 기후정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나란히 걷게 하시고, 때때로 앞서가는 이를 존중하고 뒤따라오는 이를 격려하며 주님과 함께 기쁘게 끝까지 걷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3일 토요일 - 기후정의를 향한 청년의 기도

박세론 (EYCK 간사)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심으로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큰 하늘을 제가 직접 봅니다.

그러다 이내,
주님의 하늘을 비웃듯
짝지어 비행하는 전투기들을 제가 직접 봅니다.

그래서 땅을 내려다보니,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소리없이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바다 앞 해변에서는
앞으로 보지 못할 것 같은 청정한 수평선 풍경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기에
저희 청년들은 힘이 없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
포기하지 않기를,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어
우리를 부르시는 정의의 성소,
가장자리에 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기후정의주일 예배 자료집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
www.kncc.co.kr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www.greenchrist.org